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대림 제3주일(자선주일)
제32권 3호(나해) 2011.12.11

[묵상]



세례자
요한의
설교

<16c,
파울로
베로네제,
보르게세
미술관,
로마>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주님의 영으로 가득한 그 빛은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부서진 이들을 싸매어 주며,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갈진 이들에게 석방을 선포하시려
저희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그 빛이 저희 가운데 계셨으나
저희는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 빛을 증언하기 위하여
요한은 이 세상에 왔습니다.
빛을 증언하여 저희들로 하여금
빛을 믿게 하려고 했습니다.

빛을 증언할 뿐인 요한을
세상은 빛으로 모시려고 하지만,
그는 빛의 길을 곧게 내라고 외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입니다.
빛이 아니면서 빛인 착하는 세상을 향해,
빛이 아닌 것을 따르면서
빛을 따르는 착하는 저희에게,
빛만을 보고, 빛만을 따르라고 외치는
저희의 양심을 두들기는 외침입니다. -桓-

martinlee0501@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 283-5879
연립회 (장례시 연락처) : (310) 720-824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 행사표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레지오 마리아 에비자 교리반	오후 2:00 오후 8:00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전신자 성경통독	저녁 미사후 오전 9:00 오전 11:00 오전 10:00, 오후 8:00
금요일	병자영성체(1제주) M.E. Sharing(3제주)	오전 10:00 오후 7:00
토요일	유아세례(작수달 4제토요일) 성령기도회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후 8:00 오후 6:00
주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페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제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제주 - 모임의 날 ● 안나회/양업회, 성모회 자모회/대건회/원서회 ● 꾸리아 3제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 ● 대재회 ● 울뜨레아 -행사의 날 4제주 - 사목회 -가정의 날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2: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일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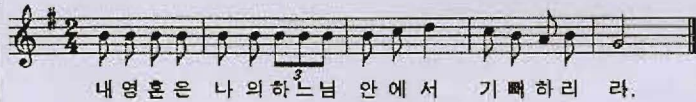
주임신부 : 이장환 마르티노 (310) 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문 밍티스타 (310) 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 637-9000
평협회장 : 이재정 사도 요한 (562) 403-7345
사무실 : (310) 326-4350 Ext.100 Fax: (310) 326-4360

토 요	(연)권순봉 요안나, 노영옥 & 노로사
특전미사	(생)김행선 올리아나, 이지미 마리아 & 이진향 아녜스, 에블린 페리아, 김태호 아오스딩 & 김양자 카타리나
주 일	(연)유점미 베로니카, 박부원, 오진 베드로, 신태동 요아킴, 고준희 제임스, 조지 G 가보라, 엄익찬 안토니오, 이정기 클레멘스 & 이복래 마사 & 김홍배 루카, 이돈영 베드로, 박영춘 안토니오
낮 미사	(생)이재정 사도요한, 권태만 실베스텔, 박홍룡 요셉, 차인수 안드레아, 박인식 토마스, 민석준 토마스 & 민영준 마르코, 김효임 골롬바, 이근모 마리오, 이행자 리드비나, 하정화 켈마, 김풍길 바오로 & 김재희 모니카, 오혜숙 루시아 & 오세원 아타나시오, 설수민 카타리나, 최경애 프란치스카 가정, 이크리스 가정, 정연영 크리스티나, 한길미아 베로니카, 송준규 미카엘 & 이영숙 루실라 가정, 하버카슨 반원들, 하늘의 문pr. 홍석인 체칠리아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이사야서(Isaiah) 61,1-27.10-11

화답송 ○내 영혼은 나의 하느님 안에서 기뻐하리라.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고,
내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내 마음 기뻐 뛰노니,
그분이 비천한 당신 종을 굿어보셨음에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 하리라.○
○전능하신 분이 나에게 큰일을 하셨네.
그 이름은 거룩하신 분, 그분 자비는 세세 대대로
그분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미치리라.○
○그분은 굿주린 이를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고,
부유한 자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네. 당신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돌보셨네.○

제 2독서 데살로니카 1서(1 Thessalonians) 5,16-24

복 음 ○알렐루야.

환호송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나를 보내셨다.○

복 음 요한(John) 1,6-8.19-28

영성체송 마음이 불안한 이들에게 말하여라. 힘을 내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우리 하느님이 오시어,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미사곡			33-42
입당	130	130	129
봉헌	332	268	255
성체	309	309	305
파견	130	131	133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 하느님의 말씀에 관하여 -

▶ 제1부 하느님의 말씀

“한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요한 1,1.14)

말씀하시는 하느님

말씀의 그리스도론

예수님 당신께서 직접 마지막 만찬 때에 성체성사를 제정하시
면서 흘리신 당신의 피로 맺어진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말
씀하시고(마태 26,28; 마르 14,24; 루카 22,20 참조), 당신께
서 우리를 속박에서 결정적으로 해방시키시는 참된 희생양이
심을 보여 주십니다.

지극히 찬란한 부활의 신비에서, 말씀의 이 침묵은 그 진정한
고 결정적인 의미를 드러냅니다. 강생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
히시고 부활하신 하느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주
님이십니다. 그분은 승리자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며, 모든 것
들은 그분 안으로 영원히 모이게 됩니다.(에페 1,10 참조). 그
러므로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요한 8,12), “어둠 속에서 비
치는”(요한 1,5) 빛이시고, 어둠은 그 빛을 꺾지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시편 119편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게 됩니
다. “당신 말씀은 제 발에 등불, 저의 길에 빛입니다.”(시편
119[118], 105). 부활하신 말씀은 우리의 길을 비추는 이 결
정적인 빛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처음부터, 그리스도
안에 하느님의 말씀이 한 인격으로서 현존하고 있음을 인식했
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인간이 필요로 하는 그 빛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을 통하여 하느님의 아드님은 세상의 빛으로
떠오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과 함께 그리고 그분을 위
하여 삶으로써 빛 안에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13). “말씀의 그리스도론”의 핵심에 이르러, 강생하신 말씀 안
에서 나타나는 하느님 계획의 단일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
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부활의 신비를 성경에 따라,
성경의 가장 내밀한 성취로 제시합니다. 바오로 성인은 코린
토 1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 말씀대로”(1코린 15,3) 우
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고 사흘날에 “성경 말씀대로”(1코린
15,4) 되살아나셨다고 단언합니다.

이로써 사도는, 주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사건을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과 맺으신 옛 계약과 연결시킵니다. 그는 우리에게,
그 역사가 바로 이 사건으로부터 논리와 참된 의미를 얻게 된
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파스카 신비 안에서 “성경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다른 말로하면,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진 이 죽음
은 그 자체 안에 로고스를, 논리를 지니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
리스도의 죽음은 하느님의 말씀이 남김없이 인간의 ‘살’ 이 되
시고 인간의 ‘역사’가 되셨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마찬가
지로, 예수님의 부활도 “사흘날에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집니
다. <◆계속>

어둠에 묻히지 않는 달처럼...

“슬픔이 절망 속에서 움켜쥔 썩은 지푸라기라면 행복은 희망 속에서 마주친 향기로운 꽃”이라는 말이 한 해를 보내는 마음에 잔별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지나온 시간은 늘 말 없는 말로 채근하고 오늘은 그 말 없는 말에 죄인 아닌 죄인처럼 움츠러들지만 그래도 내일을 향하는 발걸음 멈출 수 없기에 다소곳이 두 손 모으고 슬픔의 썩은 지푸라기가 아니라 희망 속에 마주친 향기로운 꽃이 되기를 기도하는 대림입니다.

사람이 만물의 영장일 수 있는 이유는 지적인 능력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자기 정체성과 자신에 대해 관심을 갖는 유일한 존재이기에 인간은 인간일 수 있고 인간다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삶은 자신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시작하지만 그 영역을 어느 정도 확대해 가느냐에 따라 성숙과 미성숙으로 나뉘게 된다는 어느 심리학자의 말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생의 출발점에 서지만 끝은 갈을 수 없고 태어나는 모습은 선택할 수 없지만 마지막은 선택할 수 있기에, 오늘을 사는 자신의 모습을 진지하게 성찰해 보려는 노력만큼은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복음 속에서 세례자 요한은 자신을 찾아와 누군지 묻는 이들에게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대로 ‘주님의 길을 곧게 내라’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라 말합니다. 주님의 길을 곧게 ‘내는 사람’이 아니라 ‘내라고’ 외치는 소리라는 자신에 대한 이해는 어찌면 모든 신앙인의 정체성을 되물게 하는 대답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그리스도를 증언할 사명을 받았고 그 사명에 충실해, 중국에는 신앙의 마중물이 되어야 하는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

입니다.

달은 어둠 속에 자리하지만 어둠에 묻히지 않고 태양처럼 어둠을 압도하지 않지만 결코 그 빛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다만 어둠을 바라보며 어루만질 뿐입니다. 세상은 빛과 어둠, 선과 악이라는 극단적 생존방식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빛과 어둠, 선과 악 그리고 그 어둠과 악을 어루만지는 사랑과 자비가 마주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어찌면 신앙인의 삶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둠에 묻히지 않는 달처럼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에 묻히지 않고 세상을 어루만져야 할 삶 말입니다. 연약한 들꽃이 밤새 비바람을 맞으면서 어두운 밤을 이겨내고 흘리는 눈물이 아침이슬이듯이 우리 신앙인이 세상을 살면서도 세상에 묻히지 않기 위해 애쓰는 진실한 눈물이 이 세상 구원을 위한 마중물이 되어야 합니다. ‘변명이 많으면 삶은 구차해지고 발전은 느려지는 것’처럼 한 해를 보내는 우리가 구차한 자기변명보다는 진실한 반성과 참된 회개의 마음을 간직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늘의 거룩함이 천상 빛을 타고 마음 착한 이들에게 사랑으로 입맞춤하는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입니다. 어둠에 묻히지 않는 달처럼, 연약한 들꽃이 밤새 비바람을 이겨내고 흘리는 아침이슬처럼 그렇게 모진 삶에도 올 한해 하늘의 거룩함을 사랑으로 살아내려 애쓰신 형제 자매들에게, 그 옛날 동방박사들을 인도하던 영롱한 별빛이 언제나 함께 하기를 기도드립니다.

◆권철호 다니엘 신부 /

서울대교구삼각지성당 주임

이번 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창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갈유현 미카엘	남성철 베네딕도	박희자 마리아
제1독서자	임정빈 보스코	김교복 레오	송현식 바오로
제2독서자	김은지 릴리안	서용숙 에스텔	정명모 마리아
제물봉헌자			P.V. 2반

다음주 전례 봉사자

다음주	토요특전 (창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김은지 릴리안	김숙희 유소사세실리아	정미영 미카엘라
제1독서자	이영호 사도요한	권오상 바오로	유철희 바오로
제2독서자	서현수 율리아	권순길 세실리아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토런스 남 3반

본당 설립 30주년 기념 주제 **“주님께는 찬미를, 이웃에게는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 속에 성장하는 백삼위”**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대림 제3주일

이제 세번째 대림초를 밟았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무엇보다 구체적인 자선을 통해 '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웃에게 조금만 눈을 돌리면 우리의 사랑과 관심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형제자매를 만날 수 있습니다.

- ◆ **대림 합동 판공성사** : 12월13일(화)
 - 참회예절 : 오후 7시30분
 - 고해성사 : 오후 8시부터(주일학교 성사일정 같음)
 - 공동보축 : ㉠마르코 복음서 통독 ㉡선행1회 ㉢주모경기도 중 두가지 선택
- ◆ **본당설립 30주년 기념행사를 끝내며 드리는 감사미사** : 18일(주일) 오전 11시 미사중에, '초봉헌', '성경통독 봉헌', '묵주기도 30만단 봉헌', 본당의 30년 역사소개 등이 진행됩니다.
- ◆ **성탄 밤미사** : 24일(토) 오후 9시
- ◆ **성탄 대축일미사** : 25일(주일) 오전 9시30분 학생미사, 오전 11시 낮미사
- ◆ **송년미사** : 12월31일(토) 밤11시30분
- ◆ **천주의 성모마리아 대축일미사** : 1월1일(주일) 오전 9시30분 학생미사, 오전 11시 낮미사
- ◆ **‘천상의 어머니 꾸리아’ 연차 총 친목회**
 - 일시·장소 : 주일(11일) 오후 3시, 강당
 - 대상 : 레지오 활동단원, 협조단원과 관심있는 교우들
- ◆ **미시령 특선 황태 판매...성 정하상 바오로 성당 전립기금 모금**
 - 일시 : 12월11일(주일) 아침미사 후부터 천교장
 - 가격 : \$40(700g 10마리)
 - 본당 ME에서 봉사하십니다.

- ◆ **본당설립 30주년기념 전신자 성경통독 ‘신약 총정리’ 특강으로 1년간 대장정을 끝냅니다.**
 - 일시 : 12월15일(목) 오전 10시, 오후 8시 두차례
 - 지도 : 이장환 마르티노 본당 신부님
 - 종강후 종교교육분과가 마련한 간소한 ‘종파티’가 있음
 - ‘성경읽기표’를 꼭 내어주십시오.
- ◆ **요셉회 무료 음식봉사**
 - 일시 : 18일(주일) 낮미사 후 천교장
 - 전신자들에게 무료로 치킨테리야키를 대접합니다.
 - 문의 : 요셉회장 신중철 아브라함 ☎(310)619-4343
- ◆ **멕시코 과달루페 성지순례**
 - 신청자들께서는 잔금 \$900과 여권 앞면 copy를 오늘 주일(11일)까지 제출 바랍니다.
 - 일시 : 2012년 1월16일(월)~19일(목) 3박4일
 - 추가인원 0명 신청 가능
 - 문의 : 금영도 베드로 종교교육분과장 ☎(213)505-2941
- ◆ **성탄절 앞두고 전신자 본당 대청소 실시**
 - 성탄 대축일을 앞두고 성전 안팎과 2층교실, 화장실, 천교장, 부엌, 정원, 축구장 등 본당 시설물 구석구석을 대청소합니다.
 - 일시 : 12월18일(주일) 낮미사 마치고 점심식사 후
 - 청소 담당구역 : 소공동체 구역장/반장, 계시관 안내 참조
- ◆ **양업회 불우교우돕기 음식봉사에 협조하신 분들께 감사**
 - 지난 주일 양업회가 마련한 음식봉사에서 \$1800을 교우들께서 도네이션해주셨습니다. 이 따뜻한 정성으로 모아진 성금은 본당의 딱한 처지의 교우분께 전달했습니다.
 -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 ◆ **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12월11일(주일) : 토런스 동1반(카레라이스 \$3) 주일학교 (스파게티)
 - 12월18일(주일) : 요셉회 (치킨테리야키 전신자들에 대접)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숙경	김광자	김교복	김기정	김대우	김병조	김병학
	김선제	김옥보	김원모	김정웅	김종렬	김주량	노순애
	노찬술	노혜숙	민기남	박근식	박상준	박찌니	박음전
	박인식	박정희	박종열	방정복	배대임	석순영	송기철
	송준규	송호창	엄지선	오강남	오수인	오일순	유영균
	이근모	이근태	이남현	이명자	이상석	이영희	이은록
	이인두	이재용	이재철	장영우	전정일	정동호	정병훈
	정지숙	조준제	조화숙	최금옥	최기남	최진수	한금순
	한장환	한혜숙	황학수	영희가보라	송마이클	신영웨버	
	합계 : \$6,360						
미사헌금 : \$2,614							
2차헌금 : \$1640							

성전헌금	강숙경	김광자	김교복	김기정	김대우	김병조	김병학
	김선제	김옥보	김원모	김주량	노순애	노찬술	노혜숙
	민기남	박찌니	박인식	박정희	박종열	방정복	석순영
	송호창	엄지선	오수인	유영균	이근모	이근태	이남현
	이명자	이상석	이영희	이은록	장영우	전정일	정동호
	정지숙	조준제	조화숙	최기남	최진수	한금순	한장환
	한혜숙	영희가보라	송마이클				
	합계 : \$3,638.36						
	리사이클링 : \$48.36						

공지사항

◆ 영성체 순서가 바뀝니다.

- 일시 : 오늘 주일(11일) 미사부터
- 앞줄에 앉은 신자부터 차례로 나가 영해 주시고, 영성체 후 자유로운 자세로 개인묵상 하시기 바랍니다.

◆ 주일학교 성탄 예술제 안내

- 일시 : 12월17일(토) 오후 2시~4시 성전
- 대상 : 유치부~12학년
- 문의 : 김낙기 바오로, 박윤희 스테파니 행사담당교사
☎(310)7093343, ☎(310)613-9116

◆ 주일학교/한국학교 겨울방학

- 12월25일(성탄대축일)/1월1일(천주의 성모마리아대축일) 두주일, 수업 없습니다.
- 수업은 없지만 영어학생미사(오전 9시30분)는 있습니다.
- 문의 : 이인석 비오 주일학교장 ☎(213)258-8665

◆ '십자가의 길' 기도문 공용 비치

- 지향에 따라 주제가 다른 '십자가의 길' 기도문을 공용(성당 비품)으로 비치하여 두었으니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당설립 30주년을 맞아 새로 건립한 '야외 십자가의 길'에서 기도하실 때 유용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 비치장소 : 성모상 앞 돌의자 사물장, 사무실
- 주제 : ♡성경과 함께하는 십자가의 길 ♡김수환(묵상)/장익(엮음) 십자가의 길 ♡청소년이 바치는 십자가의 길 ♡베네딕도 16세 교황님과 함께 걷는 십자가의 길

◆ 2011년 교무금과 성전헌금을 12월 중에 내주세요.

- 넉넉 않은 경제환경에도 불구하고 올 한해도 교무금과 성전헌금 그리고 특별헌금과 감사헌금을 내주신 교우여러분들의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 내년초 Income Tax Return을 앞두고, 올해 낼 교무금이 남아있을 경우 12월 중에 마감해주시면 감세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본인 현금기록(2011년) 조회 가능.

남가주 소식

◆ 남가주 ME 송년파티

- 일시 : 12월17일(토) 오후 6시
- 장소 :레이크우드 커뮤니티센터
- 내용 : 추억이 있는 본당별 발표 경연대회, 경품 푸짐
- 주관 : 남가주 한인 ME 운동본부 *백삼위 ME대표부부 정동호 하상바오로 & 정병욱 율리아 ☎(310)780-9055

◆ 예수회 성경대학 2학기과정 안내

- 일시 : 2012년 1월6,7,8일 오후6시30분~9시30분
- 장소 : L.A. 성 아그네스 한인천주교회 본당
- 강사 : 송봉모 토마스 신부(예수회)
- 수강료 : 1일 \$20, 3일 \$50 ☎(213)249-3603 교영희 데레사

소공동체 12월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차 장 차 장		박혜경 레나타 (310)808-5005 장정진 베로니카 김명재 아가다 박은혜 클라우디아 이희경 크리스티나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변혜경 율리아나 920-5153	지경수 마태오 972-8292 12/9(금) 오후 7시
	2	김찬구 요한 701-6343	한창주 요아킴 530-7702 12/10(토) 오후 6시
	3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토런스 서 장정진 베로니카 713-7783	1	이진향 아네스 989-0366	김주량 요한 782-8549 12/16(금) 오후 7시
	2	이크리스 아가토 619-7763	박근식 마카엘 316-7608 12/10(토) 오후 5시
	3	권영옥 루시아 720-2876	정광미 프란체스카 617-1132 12/12(월) 오전 10시30분
토런스 남 이희경 크리스티나 818-6903	1	최경숙 수산나 320-0855	엄영숙 마리아 373-5662 12/9(금) 오후 7시30분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12/8(목) 오전 11시 성당
	3	김희연 루시아 213-458-3356	김희연 루시아 213-458-3356 12/18(주일) 오후 1시 성당
토런스 북 최미열 클라라 895-8624	1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	정동호 하상바오로 780-9055 12/18(주일) 오후 7시
	2	1반과 같음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윤남열 세라피나 365-9750	1/2	유명련 마리아 985-2882	서창호 바오로 257-1784 12/10(토) 오후 7시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944-2737
P. V. 김명재 아가다 866-8778	1	남경희 베네딕다 384-3289	남성철 베네딕도 377-6659 12/9(금) 오후 7시
	2	금유미 크레센시아 482-9108	배진영 프란치스코 377-2228 12/9(금) 오후 7시
	3	박은혜 클라우디아 377-7063	이영석 크리스토퍼 377-7063 12/9(금) 오후 7시
	4	강숙경 도미니카 541-0767	강숙경 도미니카 541-0767 12/13(화) 오전 10시30분

이번 주 단체 모임

제단체 모임의날

다음 주 단체 모임

사목회장단 모임

오후 1시

고통의 왕 순명의 왕

'사해 부근에서'(앤도 슈사쿠 저 성바오로 출판사)란 책을 읽어보셨는지요? 저자는 이스라엘에서 성서공부를 하고 있는 옛 친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친구와 함께 예수님 주요 활동반경이었던 갈릴래아와 사해 부근 지방을 여행하면서 예수님 발자취를 추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삶을 깊이있게 재조명합니다.

저자는 기적과 치유로 환영받는 초능력의 예수님보다는 고통당하는 이웃에 대한 충실한 봉사를 실천하시는 사랑과 연민 희생과 자비의 예수님을 부각시키고자 노력합니다. 마구간 탄생의 그 겸손과 소박함이 예수님 일생 전체를 관통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해결사의 면모를 지닌 메시아보다는 겸손하게 봉사하고 순명하는 메시아에 더 초점을 맞춥니다. 고열에 시달리며 죽어가는 사람의 머리맡에 앉아서 물수건을 올려주던 사랑의 예수님 외아들을 잃고 슬퍼하는 과부와 함께 올려주던 연민의 예수님을 부각시킵니다.

초능력뿐만 아니라 정치적 역량도 갖춘 현실적 메시아를 고대하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예수님을 실망과 조롱의 눈초리로 쳐다보지만 예수님은 단지 고통받는 이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그 이상의 일을 하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저자는 역설합니다.

우리 역시 너무나 이기적이며 편협된 메시아관을 지니고 살아왔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인류 전체를 구원하셔야 할 크신 메시아를 제 현실적 기대나 사리사욕만을 채워주시는 작은 메시아로 축소시켜 버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결코 나만의 현실적 성공과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메시아는 결코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자녀만을 대학입학 시험에 합격시켜 주고 내 고질병만을 치유시켜 주고 내 사업만을 번창시켜 주는 작은 메시아가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셔야 하는 크신 하느님이십니다.

이 책 말미에 이런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쫓겨다니던 예수님께서 한없이 지치고 슬픈 얼굴로 몇명 남지 않은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슬퍼하고 고통받는 이를 위해 올려주는 것 죽어가는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위로해 주는 것 나 자신의 비참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런 것들이 다윗 성전보다 과월절 제사

보다 더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이 정치가가 아님을 명백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앉히려고 애를 씁니다. 특히 예수님을 등에 업고 한가락해보겠다고 마음먹었던 몇몇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 껏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선생님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이제야말로 선생님께서 나서실 때입니다. 제가 힘이 돼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왕이 되시는 날 저를 꼭 기억해주시시오. 예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유다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음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유다인의 왕으로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축소시키고 격하시켰습니다.

오늘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사람들에게 조롱 받으시는 예수님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그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결코 세상의 왕이 아니셨습니다. 축복과 안녕이 보장된 세속의 왕이 아니셨습니다. 어디가나 백성들에게서 갈채받는 왕이 아니셨습니다.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최고 인물이 아니셨습니다.

그보다는 쓰디쓴 고난의 잔을 받아 마셔야 했던 인내의 왕이셨습니다. 냄새나는 죄인들의 발을 씻어주셨던 겸손의 왕이셨습니다. 그 처참했던 형극의 십자가 길을 묵묵히 걸으셨던 고통의 왕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위해 묵묵히 죽어 가신 순명의 왕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소원성취입니까? 건강입니까? 혹 끝없는 부귀영화입니까?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 십자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통과 죽음을 넘어서는 신앙 그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고통 가운데서 더욱 기뻐하고 감사하는 역설의 신비를 사는 신앙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입니다.

가장 훌륭한 묵상은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평화신문 자료실▶